

탄소진흥원 지정 '일등공신'

정운천 의원, 20대 국회 당시
설립 법안 마련 본회의 통과
21대 총선 기간 중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 끝까지 설득



전주의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며, 전북의 숙원 사업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정부(산업부)는 3일 전주에 소재한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의결했으며, 드디어 전북이 대한민국 탄소융복합산업의 컨트롤타워로 우뚝 서게 됐다. 전북의 '탄소법'은 2016년 5월 19일, 정운천 의원(사진)이 당선인 신분으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대하던 새누리당 지도부를 설득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 시키며 전북의 탄소산업이 시작했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후, 전북이 탄소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소재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3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몇 년 동안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난항을 거듭해오던 '탄소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을 정 의원이 설득에 성공하면서 통과가 예상됐지만,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예기치 못한 반대로 법안 통과에 실패해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대비해 기획재정부의 중재안을 이끌어내고, 여야 법사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준비해왔다. 특히, 21대 총선 기간 중 부산의 김도읍 법안2소위 위원장 등 국민의힘 법안2소위 위원들의 선거캠프까지 찾아가 마지막까지 불씨를 살려주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한 달 남기고 국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정부(산업부)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 이날 정부(산업부)의 발표로 전주의



국가예산 확보 위해 국회 찾은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도지사는 3일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만나 전북도의 주요 핵심사업이 2021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도의회 행자위, 본예산 심사 대비 신규사업 보고회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3일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신규사업 및 주요 예산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행정자치위원들은 소관 실·국장으로 부터 2021년 신규사업 및 주요 예산 편성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지는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호상 기자

도내 기초의회 의정 소식

채영병 전주시의원, 효자4동 상습 침수지 재발방지책 마련 나서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이 지난 2일 자신의 지역구인 효자4동 백마산길 인근 상습 침수 지역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채 의원은 지난 8월 폭우로 피해를 본 백마산길 부근이 상습침수 지역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민들과 함께 전주시에 개선을 요청했다. 채 의원은 "이번 점검으로 나온 위험요인이 시정되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운상 기자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연찬회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양해석)와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윤기환)는 3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는 남원시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감사기법과 핵심 착안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자료 분석과 심층토론, 정보교환 등을 진행했으며, 일정은 18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견은 10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 다크 투어리즘 루트 개발

도 '친일잔재 전수조사·처리방안' 공청회서 단기과제로 제시돼
중·장기 과제로 단죄비 설치·식민지역사교육관 설립 등이 거론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전북도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문가와 시군 및 관련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윤상원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용역을 통해 추진한 친일잔재 조사 및 처리방안, 향후과제를 발표했다. 친일인명사전을 토대로 조사한 도내 친일인물은 119명으로, 친일잔재는 김해강 시비 등 142건에 이르며, 친일잔재 처리기준은 청산대상, 이전활용, 단죄비 및 안내판 설치, 시설 및 공간재활용, 교육적 활용 등으로 크게 분류했다. 또한, 향후과제로 단기과제는 지명 및 도로명 등 무형의 친일잔재 조사, 친일잔재 교육 콘텐츠 제작, 식민지역사교육관 등 설립 타당성 검토, 전북도 다크 투어리즘 루트를 개발하고, 중기과제는 청산대상 친일잔재 교체,

철제 및 단죄비·안내문 설치, 식민지 유제의 공간 재활용, 친일잔재의 지속적 교육을 제시했다. 마지막 장기과제는 식민지역사공원과 식민지역사교육관을 설립하고, 친일과 독립운동을 함께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도청 지역차원의 친일잔재 청산은 통일된 기준이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해왔다"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와 시·군이 함께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친일잔재 청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북도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을 올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1월 중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2024년까지 새만금에 구축

전북도가 3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과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정무부지사, 이용욱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강민준 군산시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참석해 상호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해상풍력산업 지원 인프라(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건축부지 제공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하며, 전북도와 군산시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예산 및 각종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을 신설해 운영한다.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새만금에 전체 부지면적 3만400제곱미터 내에 8,351제곱미터 규모로 구축되며, 사업비는 총 420여 명이 투입된다. 전북도는 센터가 구축되면 324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0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2018년 11월~2019년 6월,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유호상 기자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환영"

민주 전북도당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김성주 도당위원장)은 3일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정부로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받은 것을 크게 환영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탄소산업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21대 총선 후보자였던 올해 2월,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현 법사위 간사를 만나 법안 상정과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성공처럼 전북이 하나 되고 원팀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탄소 소재를 활용해 만든 중간재 완제품 생산기업들이 이곳 전주에 집적될 때면 전주의 진정한 메카가 될 것이다"라며 "최근 소재를 생산하는 효성과 중간재를 만드는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인 전주형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거듭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을 환영하며, 전북, 전주는 명실상부 자타공인 탄소소재산업의 중심지임을 선언했다.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는 3일 전주에 소재한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정부로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받은 것을 크게 환영했다. 도의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은 전북도가 대한민국 탄소융복합산업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자, 탄소산업의 수도로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는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역사를 써왔으며, 탄소산업에 대한 인식조차 미미했던 지난 2006년부터 탄소산업 전담부서를

축! 전주매일 창간



전주 현대옥

JEONJU HYUNDAI OK

Korean Restaurant Since 1979

가맹비 등 3無 면제

가맹점 대모집

* 전북 · 전남 · 광주지역은 제외 * 자세한 내용은 '현대옥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이 사진은 별도 판매의 '오징어사리'가 반영된 것 입니다

☐ 창업은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 2020년 11월 현재의 현대옥 전체 가맹점 중 5년 이상 운영 중인 가맹점이 80% 차지

☐ 배달판매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 매장영업 + 국밥 배달 + 족발 보쌈 닭볶음탕 배달

식당성공은 '수오지심'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현대옥 홈페이지 → 자료실 → "현대옥에서 드리는 글" 참조]